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에베소서 6:1-4)

I. 부모공경은 첫 계명입니다

부모공경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모공경이 첫 계명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에서 맺는 가장 첫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단순히 공손한 태도가 아니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또한 부모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삶이 안정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복된 삶이 이어진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II. 부모공경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부모공경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시간의 제한이 있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평생 지킬 수 있지만, 부모공경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이후에는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지금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계실 때는 소홀히 하다가, 떠난 이후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부모공경은 미룰 수 없는 순종입니다.

III. 부모공경은 자녀를 위한 명령입니다

부모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결국 자녀 자신을 위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자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가정의 질서는 부모공경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이 질서가 바로 서면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공경은 개인의 윤리를 넘어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IV.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순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공경은 무조건적이지만, 순종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효도는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깊은 공경입니다.

V. 자녀양육의 두 가지 원칙

부모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처 주는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통제, 비교, 무시, 일관성 없는 태도는 자녀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자녀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형성된 가치관과 믿음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VI. 한나의 양육

한나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참된 양육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VII. 디모데의 신앙

디모데는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이어졌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됩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통해 이어지는 유산입니다.